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 1. 미국 산업정책 방향

미국내에서의 주요관심이 지정학적인 면에서 국제경제 측면으로 바뀐에 따라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미국정부의 미국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의 대통령 선거전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논쟁이 특정 미국산업에 대한 보다 확대된 정부의 직접지원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산업계 자체내에서도 목표지원보다도 전반적인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자업계는 R&D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자본이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희망하고 있다. 다른 주요관심사는 교육제도와 예산적자의 감축인데, 이는 개인기업의 투자자유화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첨단산업 부분의 R&D 비용을 고려, 기업들은 정부의 R&D지원뿐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판매에서 정부와 대학의 협력 증대를 환영하고 있다. 관련 사안으로는 기업의 비용이 드는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은 독과점법의 완화이다. 핵심부품에서 일본 경쟁업체에 의존해 가는 미국의 컴퓨터 산업계가 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착수해야 할 중요한 산업정책의 하나는 설립된지 5년이 된 국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 컨소시엄인 쉘마테크이다. 쉘마테크에는 4억불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정부와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부담케 된다. 이 금액은 미국의 전자업체가 매년 R&D에 투자

하는 금액에 비교하면 “물동이 속의 물 한방울”에 불과하다고 업계인사는 말한다. 최근 쉘마테크의 위상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11개의 참여사중 LSI를 포함하여 2개사가 탈퇴하였다.

최근에 공개된 반도체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열린 전미제조자협회의 회합에서 업체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쉘마테크보다 자본의 용이한 취득과 바람직스러운 통상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선거전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부시행정부가 국가경쟁력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과시했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시대는 정부가 경쟁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기가 어려우며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12년동안 미국무역과 국제경제정책의 추진력은 교역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산업목표, 보조금 그리고 기타의 지원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부시행정부 시절 초기에 HDTV 개발에 관하여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모스배커 상무장관의 시도는 행정부로 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과 의회는 정부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수용 하는 듯한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업정책 개발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첫째로, 국가의 일반적인 여론은 업계에서 조차, 목표 정부지원의 필요성 보다도 경제의 일반적인 사안들이—특정 산업부문에서도—미국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은 빈약한 교육, 비용

이 수반되는 보건문제, 통상법의 완화, 불리한 세계 등이다. 두번째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현재의 예산의 어려움으로 보아, 불공정성과 업계에 영합한다는 비난을 안받고 상당한 정부 지원이 산업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R&D 자금지원과 신기술의 상업화를 유도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커가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R&D를 위한 공공부분의 자금지원은 미국 기업들이 R&D에 수십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R&D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87회계년도의 4%에 비교하면 아직도 GDP의 0.5% 수준이다.

### 가. 미 행정부, 업계 및 R&D 지원 추진

'92. 1. 29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1993 회계년도에 새로운 연구의 상업화 추진을 포함한 연구개발(R&D)에 766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민간부분에 R&D의 7% 증가와 국방부분에 R&D의 1% 증가를 의미하는데, 기초 민간 부문연구에 143억 달러와 국방연구 부문에 593억달러가 지원될 것이다.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판매를 위한 응용 R&D의 특별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고속력 컴퓨터와 통신, 첨단소재, 생명공학 연구와 또한 생의학, 핵 물리학, 첨단 제조업, 에너지, 우주, 세계 변천 연구부문도 중점지원 될 것이다.

첨단 제조업에는 11억달러의 예산이 요청되었으며 첨단 민간 제조업 분야에의 예산은 27% 증가가 요청되었으나 이는 3억 2,100만달러에 불과하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첨단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지원 자금을 27%로 늘릴 것을 촉구했는데 대부분이 국방부와 미항공우주국(NA SA)에 편중되었으며 요청한 총 자금규모는 8억 300만달러이다. 과학기술 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의 현행 고성능 컴퓨터 및 통신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분야는 12년 동안의 논쟁끝에 작년말에 법제화된 AI Gore 상원의원(민)이 제안한 고성능 컴퓨터 법의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미 전국수퍼컴퓨터 네트워크 개발과 연관이 있으며 Gore 상원의원은 이를 각주의 하이웨이 시스템과 연결하는 통신망의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옹호하였다.

본법은 1992년 회계년도에 8개 연방정부 기관에 3억 9,000만달러의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에 걸쳐 약 30억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며 8개 기관은 첨단기술 개발연구기구(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DARPA), 에어지부(DOE), 미항공우주국(NASA), 전미과학재단(NSF), 미 표준·기술연구소(NIST), 미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 미 환경보호청(EPA), 교육부(DOE) 등이다.

JPCA의 목표는 과학자와 기타 사람들이 수퍼 컴퓨터 시스템,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 및 인적자원,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둬으로써 고성능 컴퓨터 기술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지원하는데 있다.

### 나. 의회 동향

자본 이득세 인하를 포함하여 첨단기술 지원 자금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자금 또는 조세공제(Tax Breaks)을 이용하는 적어도 3가지의 법안이 의회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데일 범퍼즈 하원의원(민)은 적어도 5년동안 납입 자본 1억달러 미만의 업계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자본이득세 50% 인하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1개 회사에 첫회 5백만 달러를 대출한 투자자들이 6년이상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할 경우 추가로 10% 자본이득세 인하의 수혜자가 된다. 범퍼즈 법안은 AEA와

업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9억불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면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은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자본이득세에 관한 타협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입법 전망은 밝아질 수 있다.

의회내에서 달라는 주요인물인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민)은 조세 조치 보다는 오히려 세마 테크와 같은 콘소시움의 창설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에의 투자증대 유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콘소시움은 업계에 의해 운영되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연방정부의 감독을 위해 특정기준을 설정하여 창업하는 기업에게 연방이 보장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작년도에 첨단 업체의 제품 판매를 지원키 위하여 미 정부의 자금 융자를 추진한 리차드 게파르트 하원 원내총무(민)의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반도체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의 권고**  
국가 반도체 전략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반도체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Semiconductors)는 1992. 2월 세번째이자 최종 연보(年報)를 발표하였다. 본 위원회(MACS)는 이제 해체될 것이며 또한 “국가 반도체 전략: 대통령, 의회, 업계의 사안(A National Strategy for Semiconductors: An Agenda for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Industry)”을 발표하였다.

대의 무역과 관련하여 NACS는 미 반도체 공업협회(SIA)와 미 전자협회(AEA)의 권고에 따라 미국반도체 산업지원, 일본의 현행 미·일 반도체 협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수출통제의 조정을 통한 미국 수출 기회 극대화, 미 반덤핑법 강화 등의 통상정책을 고려토록 고위급 부처간의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본 보고서는 또한 장기간의 저 코스트 자본을 공급하는 방안의 강구, 또한 가전분야의 미국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들의 철폐와 해외에서의 호혜주의적 기회에 의한 미국 가전시장의

확대 방법을 통한 미국 가전산업의 재건을 촉구했다.

NACS 권고안의 향방은 불확실한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NACS 자체가 법에 따라 존속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 관한 전국 제조업자협회(NAM)의 의회에서 본 권고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 의견이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 산업은 미국 산업들중 특별한 배려와 자금 지원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특별 산업케이스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다섯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 반도체 산업은 경제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음.
- 반도체 산업은 평탄한 경쟁분야가 있는 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음.
-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정부의 “불간섭(Hands Off)”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약탈적 무역 관행(특히 일본)을 추구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
- 정부의 간여는 효과적이었다는 의견

## 2.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특정 Plastic Encapsulated Circuits에 대한 제한 수입금지 조치

1992. 2. 18일, ITC, 특허권 침해 관련 하기 업체의 Plastic Encapsulated Circuits의 제품 수입을 금지시키는 한정 수입규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을 내렸다.

- Analog Devices, Inc.
- Integrated Device Technology
- LSI Logic Corporation
- VLSI Technology, Inc.
- Cypress Semiconductor Corporation

한국의 아남사 제품도 1990. 8. 8일, 조사 개시된 특허를 침해한 수입품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ITC의 수입규제 명분판정에 대한

재심기간은 ITC 판정일로 부터 60일 이내이다. 대통령의 재심 동안에는 Cypress, IDT, LSI, VLSI 등 피소업체들은 수입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본드(bond)를 예치해야 한다.

### 3. 미 상원, 중국에 대한 MFN 대우 법안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시키는 과반수 득표에 실패

1992. 2. 25일, 미 상원, 인권(Human Rights) 및 무역상황(Trade Conditions)과 관련하여 향후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찬성 59표, 반대 39표의 표결은 예상된 대통령의 거부권(Veto)을 반복시키는데 필요한 2/3의 과반수 득표에는 못미쳤다. 미 하원은 '91년말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시키는데 충분한 409:21표차로 본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 하원과 상원에서 2/3의 과반수 득표로만 반복이 가능하다.

본 표결은 중국내 또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의 MFN 지위 상실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홍콩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 4. 막스 바우커스 하원의원, 자동차 VARs를 품질향상과 연계시키는 법안 제안

미 상원 재무위 국제무역 소위 의장인 막스 바우커스(민-몬테나주) 상원의원은 자동차 수입에 관한 자율 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을 미국 자동차 메이커에 의한 품질향상에 연계시키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바우커스의 법안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키 위해 미 상무부의 "Malcolm Baldrige Quclity Award"에 명기된 기준을 이용할 것이다.

General Motors사의 Cadillac 사업본부는 이 미 볼드리지 상을 받았다. 바우커스에 의하면

그의 법안은 미 하원 원내총무인 리차드 케파르트(민-미주리주)의원과 돈 리글 상원의원(민-미시건주)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토록 제안한 보다 구체적인 법안들과 절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 5. 다자간 무역협상 진전 상황

아더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촉구한대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92. 4월 중순에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확실하다. UR의 새로운 타결시키는 '92.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G-7정상회담과 맞물리는 급년 여름이 될 것이다.

급년 여름의 UR 타결은 미 의회가 UR 협정 시행 법안을 추진에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년이 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의회 회기는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ast Track에 따르면 UR협정 발효 및 협정시행 법안이 제출되기 90일전에 의회에 통보 해야한다.

신속 승인권한이 1993. 6. 1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견지에서 볼때 1993. 3. 1이 최종 협정 제출기한이 될 수 있다.

UR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 백악관이 선거철을 감안하여 주요 통상정책의 달성을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적극 추진토록 고무시킬 것이다.

미 노동 단체와 특정 환경보호 주의자들에 의해 NAFTA가 반대되고 있지만 미남서 지방의 애들과 히즈페닉스 및 기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의회 직원들에 따르면 미 업계는 UR보다는 NA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400명의 NAFTA 협상자들이 지난 주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달라스에서 회동하였으나 보도에 의하면 원산지 규정, 자동차 무역, 외국인 투자,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지 못했다.